

2023년 9월 중국 무역 동향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3. 10. 19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9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$\Delta 6.2\%$ 감소

-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1~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
- 수출증감률은 시장에측치($\Delta 7.6\%$)를 상회하였으나,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
- 9월 무역수지는 약 777억 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약 95억 달러 증가

○ (수입) 9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$\Delta 6.2\%$ 감소

-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1~9월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
- 수입증감률은 시장에측치($\Delta 6.0\%$)를 하회하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
- 제조업 경기 회복, 에너지 안보 우려 등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, 에너지 품목의 수입 수량은 증가하는 추세

1 수출입 동향

- 9월 수출액은 $\Delta 6.2\%$ 감소한 2,991억 3천만 달러(약 405조 원), 수입액은 $\Delta 6.2\%$ 감소한 2,214억 2천만 달러(약 300조 원), 무역수지는 777억 1천만 달러(약 105조 원) 흑자를 기록
 - 9월 수출은 전월에 이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감소세를 보였고, 1~9월 누계 무역수지는 6,303억 달러(약 853조 원)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0.2% 감소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

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2	'23.상반기	'23.7월	'23.8월	'23.9월	'23.1~9월(누계)
수 출	35,605 (7.4)	16,569 ($\Delta 3.4$)	2,817.6 ($\Delta 14.5$)	2,847.9 ($\Delta 8.8$)	2,991.3 ($\Delta 6.2$)	25,203.1 ($\Delta 5.7$)
수 입	27,094 (1.1)	12,522 ($\Delta 6.8$)	2,011.6 ($\Delta 12.4$)	2,165.9 ($\Delta 7.3$)	2,214.2 ($\Delta 6.2$)	18,900.0 ($\Delta 7.5$)
수 지	8,511	4,047	806.0	682.0	777.1	6,303.1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9월 수출입총액은 5,205억 5천만 달러(약 705조 원)로 $\Delta 6.2\%$ 감소했으며,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$\Delta 6.4\%$, $\Delta 5.7\%$, $\Delta 7.5\%$ 감소세를 보임
 - (수출)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1~9월 누계 수출액이 감소
 - 9월 수출증감률은 전월 대비 완화, 무역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낙관론 제기
 - 9월 여행용품, 의류, 신발, 휴대폰 등 다운스트림 소비재 및 중간재 수출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, 자동차 수출 성장세도 지속
 - (수입)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1~9월 누계 수입액이 감소
 - 월별 수입증감률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으나 원자재 위주의 수입 수량은 증가하는 추세, 다운스트림 소비재의 내수 회복세는 완만함
 - 호주, 브라질, 러시아 등 주요 원자재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
- 4분기에도 부동산시장 침체, 고용 경기 약화, 디플레이션 등 무역 하방압력은 여전히 존재하나 중국-러시아 무역 및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은 확대될 전망
 - 일부 전문가는 중국 무역 회복 양상은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, 금년도 GDP 목표치 달성을 위한 더 많은 신규 경기부양책 필요성 제기
 - 로이터(Reuters)는 중국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부양책의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가 2024년 이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
 - 중국-러시아 경제무역 협력은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이며 9월 양국 간 수출입액은 211억 8천만 달러로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래 최고치 기록
 - 한편,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, 겨울철 계절 요인, 제조업 경기회복 등 영향으로 건설 원자재, 산업용 연료, 석탄 및 천연가스 수입 수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올해 1~3분기 중국 일대일로 대상국에 대한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.1% 증가하였으면 전체의 46.5% 비중을 차지 - 중국은 일대일로 대상국 중 74개국의 최대수입국이자 35개국의 최대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, 중국의 초대형 시장 및 공급망은 경제 발전 촉진의 동력으로 작용 - 1~9월 중국의 21개 자유무역시범구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4.6%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18.3% 비중 차지. 동기간 하이난 자유무역항 수출입액은 20.3% 증가 - 리튬배터리, 전기자동차, 태양전지 등 녹색제품 수출액은 14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
	 차이신 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올해 초부터 지속된 글로벌 경기침체는 중국 대외무역 실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침. 글로벌 산업공급망 구조조정 가속화로 중국은 수출점유율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음 - 올해 중국 수출은 수량 증가, 금액 감소 추세가 명확히 나타났으며, 철강, 세라믹 제품, 희토류, 정제유, LCD 모니터, 가방 등의 수출단가 하락 영향이 반영됨 - 1~3분기 철강 수출 수량은 31.8% 증가한 반면 톤당 평균 수출단가는 $\Delta 30.8\%$ 하락 - 가전제품 수출은 회복 모멘텀을 보였고, 내수 경기 회복으로 원자재 수입 증가 - 올해 수입금액은 1분기(4조 2억 위안), 2분기(4조 4억 위안), 3분기 (4조 6억 위안)으로 매 분기 증가하였으며, 1~3분기 누계 수입 수량은 2.6% 증가
	 자오상 은행 (招商银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행용품, 의류, 신발 등 소비재 수출은 전반적으로 개선, 자동차 수출 성장세 지속 - 내수 수입 회복세는 완만하며 9월 미국, ASEAN, 한국,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월 대비 증가한 반면, EU, 중남미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월 대비 감소 - 10월 수출 증가율은 소폭 감소 혹은 보합세가 예상되며, 수입 증가 폭은 수출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,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해외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은 일부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했으나, 장기간 지속되는 부동산 위기, 글로벌 성장 둔화,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소비자 및 기업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제약을 받음 - 9월 수출증감률은 $\Delta 6.2\%$로 지난 8월 증감률 $\Delta 8.8\%$ 대비 완화, 시장예상치 ($\Delta 7.6\%$)를 상회하였으나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- 9월 수입증감률은 $\Delta 6.2\%$로 지난 8월 증감률 $\Delta 7.3\%$ 대비 완화, 시장예상치 ($\Delta 6.0\%$)를 소폭 하회하며 느린 내수 회복세를 보임 - 최근 중국 제조업체들의 완제품으로 재수출하기 위한 한국 부품 수입 수요가 증가 - 중국정부가 신규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는 2024년 이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
	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, EU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, 9월 대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.34% 감소하여 14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- 1~3분기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, 철광석, 구리 품목과 에너지 안보 우려로 인한 에너지 수입(석탄, 원유) 수량도 지속 증가 - 향후 중국 추가 인프라 투자로 건설 원자재 수입 수요 증가 예상 - 9월 무역 흑자는 지난달에 비해 확대되었으며, 4분기에도 중국 무역 흑자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
	 블룸버그 (Bloomber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월 중국 수출감소폭이 완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 경제가 안정화되고, 무역 경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됨 - 지정학적 갈등 고조 상황 속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반영 - 무역 부진 완화는 중국 경제의 단기적 경기 안정을 보여주나, 올해 GDP 목표치(5%)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신규 경기부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- 호주, 브라질, 러시아 등 주요 원자재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3. 10. 16)

- (국가별 동향) 10대 수출대상국(지역) 가운데 아프리카(수출증감률 9.0%)를 제외한 주요 지역·국가로의 1~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
 -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(△16.4%), ASEAN(△4.8%), EU(△10.6%), 중남미(△4.0%) 지역·국가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
 - 동북아경제권 내 홍콩(△8.7%), 일본(△8.3%), 한국(△7.5%)으로의 수출액과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△6.7%) 수출액도 감소
 - 수입의 경우, 러시아(수입증감률 12.7%), 호주(8.1%), 브라질(4.4%), 중남미(1.3%), 국가·지역으로부터의 1~9월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한국(△23%), 대만(△20%), ASEAN(△6.4%), 미국(△6.0%), EU(△2.1%)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

< 9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/지역	금 액	1~9월 누계증감률	국가/지역	금 액	1~9월 누계증감률
1	미국	460	△16.4	ASEAN*	353	△6.4
2	ASEAN*	440	△4.8	EU*	239	△2.1
3	EU*	415	△10.6	중남미*	207	1.3
4	홍콩	276	△8.7	대만	186	△20.0
5	중남미*	222	△4.0	한국	154	△23.0
6	아프리카*	144	9.0	일본	143	△16.3
7	일본	143	△8.3	미국	128	△6.0
8	한국	126	△7.5	호주	122	8.1
9	베트남	124	△6.7	러시아	115	12.7
10	인도	113	△0.9	브라질	113	4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상위 수출 품목 1위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5.8%), 2위 휴대폰(비중 5.3%), 3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4.9%)의 1~9월 수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△22.8%, △12.5%, △8.8% 감소

- 휴대폰 수출 순위는 8월 9위에서 9월 2위로 급등했으나, 1~9월 누계 기준 수량, 금액은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감소

*9월 휴대폰 수출은 전월대비 수량 약 1,900만 대 증가, 금액 약 88억 달러(2.2배) 증가

- 수출 6위 품목인 자동차(비중 3.1%)는 1~9월 누계기준으로 수량 64.4%, 금액 83.9% 모두 대폭 증가
- 수입 1위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4.6%)는 수량 Δ 14.6%, 금액 Δ 19.8% 모두 감소
- 2위 품목인 원유(비중 13.0%)는 1~9월 누계기준으로 수량이 14.6% 증가했으나 금액은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Δ 9.6% 감소

< 9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9월 누계증감률	금액	1~9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75	Δ 22.8	5.8
2	휴대폰	8,354만 대	Δ 8.5	160	Δ 12.5	5.3
3	의류 및 부자재	-	-	146	Δ 8.8	4.9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43억 개	Δ 5.1	135	Δ 14.1	4.5
5	방직실 및 직물	-	-	116	Δ 10.3	3.9
6	자동차(새시 포함)	50만 대	64.4	92	83.9	3.1
7	플라스틱제품	-	-	87	Δ 4.8	2.9
8	가전제품	35,304만 대	7.0	82	1.1	2.7
9	자동차부품	-	-	76	9.5	2.6
10	강재	806만 톤	31.8	66	Δ 10.7	2.2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9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9월 누계증감률	금액	1~9월 누계증감률	비중
1	반도체 및 집적회로	426억 개	Δ 14.6	324	Δ 19.8	14.6
2	원유	4,574만 톤	14.6	288	Δ 9.6	13.0
3	철광석 및 정광	10,118만 톤	6.7	108	Δ 2.2	4.9
4	식량(곡류)	1,131만 톤	5.5	55	0.7	2.5
5	동광석 및 정광	224만 톤	7.8	49	5.6	2.2
6	천연가스	1,015만 톤	8.2	48	Δ 5.8	2.2
7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47	Δ 21.8	2.1
8	의약품 및 약품	34,343 톤	31.5	42	7.2	1.9
9	미단조 동 및 동재	480,426 톤	Δ 9.5	41	Δ 17.2	1.9
10	대두	715만 톤	14.4	41	3.7	1.8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4 주요 경제지표

- 9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50.2로 6개월 만에 기준선(50)을 상회,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년 동기대비 $\Delta 2.5\%$ 하락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보합 유지
 - 9월 PMI는 50.2로 하위 지표인 생산지수, 신규주문지수, 공급업체 납기지수가 기준선(50)을 넘어서는 등 경기개선 기대
 - 9월 PPI($\Delta 2.5\%$)는 지난달에 이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며, 화학 원료, 연료, 석탄 등의 산업재 가격 하락 영향이 반영됨
 - 9월 CPI(0.0%)는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, 세부적으로는 식품가격 3.2% 하락, 비식품 가격 0.7% 상승, 서비스 물가 1.3% 상승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20	2021	2022	'23.상반기	7월	8월	9월	
경제성장률(%)	2.2	8.4	3.0	5.5	-	-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$\Delta 3.9$	12.5	$\Delta 0.2$	8.2	2.5	4.6	-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2.9	4.9	5.1	3.8	3.4	3.2	-	
산업생산 증감률(%)	2.8	9.6	3.6	3.8	3.7	4.5	-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(%)	51.9	50.3	47.0	49.0	49.3	49.7	50.2	
소비자 물가지수 CPI(%)	2.5	0.9	2.0	0.7	$\Delta 0.3$	0.1	0.0	
생산자 물가지수 PPI(%)	$\Delta 1.8$	8.1	4.1	$\Delta 3.1$	$\Delta 4.4$	$\Delta 3.0$	$\Delta 2.5$	
실업률(기말, %)	5.2	5.1	5.6	5.3	5.3	5.2	-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444 (4.5)	1,735 (20.2)	1,891 (8.0)	-	-	-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2,165	32,502	31,277	31,930	32,043	31,601	31,151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74	6.4512	6.7208	6.9252	7.1619	7.1733	7.1839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326 ($\Delta 2.7$)	1,629 (22.9)	1,558 ($\Delta 4.4$)	-	99 ($\Delta 25.1$)	105 ($\Delta 19.9$)	110 ($\Delta 17.6$)
	수 입	1,089 (1.5)	1,386 (27.3)	1,546 (11.5)	-	112 ($\Delta 19.2$)	117 ($\Delta 13.4$)	111 ($\Delta 12.1$)
	수 지	237	243	12.1	-	$\Delta 12.7$	$\Delta 11.9$	$\Delta 1.4$

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 주: 9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